

예술가들의 연구실을 개방하다

In the Laboratories of Modern Prometheus(es)展
2012_0426 ▶ 2012_0513 / 월요일 휴관

Vol.20120426b | 예술가들의 연구실을 개방하다展 (네오룩 아카이브)

초대일시 / 2012_0426_목요일_05:00pm

2012년 인사미술공간 전시기획공모 당선전시

참여작가이서준_박재영_최종하

작가와의 대화/ 2012_0506_일요일_03:00pm

기획 / 고동연전시 코디네이터 / 송수희전시 도슨트 / 이승경

관람시간 / 11:00am~07:00pm / 월요일 휴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Insa Art Space of the Arts Council Korea서울 종로구
원서동 90번지Tel. +82.2.760.4722

과학기술을 예술 작업의 수단이나 결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이론들을 예술 작업의 주요한 영감으로 사용하여 온 작가들의 작업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전시하고 관객들의 깊은 공감대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예술가들의 연구소를 개방하다』는 리서치 프로젝트와 같은 형태의 과정을 거치면서 작업을 하는 젊은 미디어작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각각의 작업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여주는 전시이다. 인사미술공간의 3층 공간이 이서준(1층), 박재영(2층), 최종하(지하층)의 영상, 설치, 드로잉 작업들과 작업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아카이브(자료, 사진, 드로잉, 노트, 개인물건), 그리고 작가들이 영감이나 정보를 얻었던 전문적인 과학도감들로 총망라된 예술가들의 연구소로 꾸며지게 된다.



1층 이서준 <http://www.youtube.com/watch?v=INdObJuS9LM>



2층 박재영 <http://www.youtube.com/watch?v=NbLUALqwuWo>



3층 최종하 <http://www.youtube.com/watch?v=azj3serheq4>

서문: 예술가들의 연구실을 개방하다.

고동연 (기획자)

인사미술공간, 4월 26일-5월 13일, 서울

이제까지 현대 미술에서 과학이 어떻게 예술적 표현과 주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정작 예술계에서 ‘과학’을 사용하는 방식은 과학기술적인 매체를 사용하여 관람객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확대시키는 데에만 집중되어 왔다. 미디어 전시들은 영상매체의 공감각적인 표현이나 단순한 상호소통적인 예술적 기재 (apparatuses)들을 부각시키는 데에만 한정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예술가들이 만나는 기존 미디어 아트들은 모두 기술과학을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국내의 미디어 아트 관련 전시들은 비주류적이고 과학에 냉소적인 일련의 젊은 작가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재현하는 데에 있어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어 왔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매체보다는 과학과 인문과학, 사회비평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다. 전시회에 소개될 이서준, 박재영, 최종하는 기술과학과 연관된 매체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미디어 작가들과는 구분된다. 이들의 주된 예술적 수단은 결코 화려하고 스펙터클하며

편리한 각종 영상매체가 아니다.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과 체계적인 방법론들이 사용되지만 작업의 결과는 오히려 로우 테크에 가깝다. 또한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목적도 황당한 경우들이 많다. 이서준은 후생인류의 미래를 탐구하기 위하여 오래된 진화론적 모델, 르네상스 시대의 도면을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박재영에게 과학계가 주장하는 ‘믿을 만한 통계’나 첨단 장비, 그리고 ‘잘 나가는’ 과학자들의 권위는 의심의 대상이다. 최종하에게 현대 과학기술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에너지원들은 부조리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이다. 그래서 작가는 불편하고 심지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나 결국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더 부합하는 “인디 머신”을 고안하여 왔다.

하지만 전시장에서 정작 작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과학적 이론, 지식, 과학사상사의 쟁점들이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작가들은 오랜 리서치와 사전 작업,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을 발전시키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과정들은 전시장에서 생략되고 관객에게 전시되지 않는다. 대신 관객들은 이서준의 ‘후생인류 프로젝트’가 지닌 아름다운 자태와 박재영의 ‘다운라이트’ 일렉트로닉스의 반짝거리는 표면, 최종하 작가의 ‘인디 머신’이 지닌 기이하면서도 오래된 감수성을 자극하는 나뭇결에 감탄하게 된다. 관객들은 과정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 친숙한 전통적인 조각이나 물질적인 결과물들에 자극 받고는 한다.

그러므로 미디어 예술을 기획하는 주도적인 흐름과는 달리 본 전시는 연구실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작가들이 작업과정과 연관된 과학적 지식들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관객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전시 방법은 관객들이 더 이상 결과로서의 작업뿐 아니라 이들 작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과정에 더욱 주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예술의 창작과정이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한 인문,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는 아카이브가 지닌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아카이브는 현대미술에서 꾸준히 결과가 과정의 중요성이 결과의 그것보다 더욱 중시되면서 각광받게 된 전시 방식이다. 여기서 아카이브 전시 방식은 무엇보다도 관객과 예술가의 소통의 폭과 깊이를 확대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결국 전시된 아카이브들도 작가가 선택한 귀하고 특이한 물건들에 해당한다. 아카이브 전시방식은 현대예술의 개방성을 상징하면서도 작가와 관객 사이에 여전히 거리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작가의 아카이브는 관객들에게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신기하고 독특한, 물론 아직도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연 어디까지가 적합한 아카이브의 한계인지도 확실치 않다.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적, 과학적 아카이브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예술가들이 직접 사용하고 고른 아카이브가 지닌 개방성의 문제점 (관객과의 관계에서나 그 한계점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관객들이 관심을 지녀주었으면 하는 관전 포인트이다.

Foreward: In the Laboratories of Modern Prometheus(es)
Dongyeon Koh
April 26 - May 13, 2012. Insa Art Space, Seoul

The question of how science can expand the scope of artistic expression in contemporary art has already been much debated. The curatorial and critical

approach toward the influence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art, however, has been overly concentrated on the improvement of the audiences' cognitive abilities through the use of scientific media. Oftentimes, media related exhibitions have been replete with euphemisms toward video media or interactive apparatuses. It becomes commonplace that majority of media arts--where viewers and artists allegedly meet--have manifested an excessively utopian perspective toward art and science collaboration. The dominant curatorial approach toward media art so far, thus, have shown themselves to be limited when it comes to reflecting subliminal, yet important tendency among younger generation of artists who take a cynical stance toward science.

This exhibition is located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science, humanities and social criticism, rather than scientific media and apparatuses. Sejoon Lee, Jaeyoung Park, and Jongha Choi, the artists to be featured in the exhibition, are distinct from the more common type of media artists using visual and technological equipments. The notable methods appropriated by these artists are less to do with spectacular, comprised of easy-to-watch video images. Although they do use expert scientific knowledge and systematic methodologies, the outcomes of their works are actually based upon low-techs. In many cases, moreover, their aims, in using such expert knowledge, appear to be absurd. Sejoon Lee, for instance, has consulted old evolutionary models and Renaissance-era blueprints to study the future of humanity. To Jaeyoung Park, "credible statistics" endorsed by scientists, cutting edge equipment and "successful" scientists are rather subjected to scrutiny. According to Jongha Choi, the dominant mechanical structures energy sources for most of the advanced machines and gadgets used in our everyday turns out to be irrational or, worse, harmful for humanity. Here, Choi devised his "Indie Machine(s)," which appear to be inconvenient and does not even work properly, at least, yet ultimately, corresponds more closely to his own necessity and desire.

In the exhibition space, however, appropriating the proper method of reflecting the controversy as well as the advancement of diverse scientific theories, knowledge and thoughts as adopted by contemporary artists is far from being an easy task. The artists develop their works based on long research, advance work and study, but most of these processes have been left out of the exhibition and not for public display. Instead, viewers end up with finding themselves admiring the beautiful artistic installation of Sejoon Lee's "Future Human Project," the sparkling surfaces of the electronics in Jaeyoung Park's "Downright" and the odd wood grain of Jongha Choi's "Indie Machine." For the audience can be more easily attracted to and stimulated by some familiar notions of sculpture and material artistic production--rather than the process itself.

Thus, unlike the dominant trend in planning media art exhibitions, this exhibition aims to present artists' working methods and related scientific knowledge in the form of an archive, using the concept of an artists' "research laboratory." This curatorial undertaking is meant to induce viewers to pay more attention to novel ideas and creative processes themselves, as proposed by these artists—not being confined with their fascination with their art works themselves as final outcomes. It is also meant to demonstrate that the creative processes of art begin with very complex and diverse thoughts borrowed from different arenas of arts and humanities as well as of science. This exhibition also raises questions regarding the ambiguous significance of the archive. The archive is enjoying increasing popularity as the importance of "processes" surpassed that of artistic outcomes in contemporary art over the past decades. Above all, archive-based methods were adopted to expand the scope and intensity of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The archives on display, however, still feature only precious and special objects, literally chosen by the artist. Archive-based exhibitions, despite symbolizing the openness of contemporary art, awaken us to the fact that a distance inevitably remains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This is largely due to the idea that an artist's archive remains not as an easy or convenient subject for the lay public, but as something amazing, distinctive, and, of course, arcane. It is unclear, moreover, that what constitute the appropriate limits of the artist's archive. "What are the proper boundaries of artistic or scientific archives that inspire artists, as well as who determines these limits?" The problems with the openness of archives used and chosen by artists themselves – whether in terms of how artists can relate to their archives to the viewers or how they limit their archive – is another focal point of this exhibition that the audience are invited to ponder.